

조계사 교육국장 승묵 스님(사진 왼쪽)과 포교국장 설호 스님(사진 오른쪽)이 벽지를 분리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 돕는데 승속이 따로 있나요?"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앞둔 '자비의 집수리' 눈길

총 15명 독거어르신 돕기 나서
가재도구 옮기고 도배 실시
싱크대 · 냉장고 · 후원품도 전달

"하나 둘 셋!" 이른 더위가 몰려온 4월 28일, 종로의 한 골목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온다. 사람들이 모여 힘을 모으자 무거운 소파도 번쩍 들렸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스님들과 종무원,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진행한 독거어르신 집수리에서 더위를 잊은 환희심만 가득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처님오신날 맞이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 2곳에서 '자비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집수리 봉사활동이 사중에 공지되자 조계사 포교국장 설호 스님과 교육국장 승묵 스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리고 조계사 신도와 종무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봉사자 등 15명이 스님의 뒤를 따랐다. 이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마지막 주 주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조계사가 함께 사전조사를 거쳐 두 집을 선정했다.

봉사단이 찾은 집은 중풍, 당뇨, 관절염 등의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었다. 한 어르신은 이혼 후 당뇨와 허리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다른 한 어르신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각기 주택이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이 곰팡이로 오염돼 있는 등 위생상으로도 매우 취약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스님과 종무원, 신도들은 2층 월세집의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노후 형광등을 교체했다. 또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냉장고도 새로운 것으로 설치했다. 오래된 가구를 치우자 집안 곳곳에서는 쓰레기가 나왔다. 자신의 몸을 가누는데도 벅찬 어르신들에게 이런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한나절 동안 봉사자들이 붙어 도배 등을 하자 집안에 산뜻한 공기가 가득 찼다. 어르신들은 새집처럼 탈바꿈한 보금자리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수작업을 못 하고 살았는데 부처님의 큰 자비를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조계사는 이들 가구에 쌀과 부식, 라면과 국수 등 후원품도 지원했다. 조계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자는 사중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불자들이 자비나눔에 동참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실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스님들, 미국 현지 포교 체험

국제전법단 미주서 연수교육 및 포교현황 파악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계성)은 5월 15일까지 미국 현지 포교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전법단 자비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서 전법단원들은 LA 달마사, LA 한국교육원에서 2박3일간 교육원 인증 승려 연수교육 '미국불교 전법 현황과 포교 전략'도 소화한다.

연수에서는 전법단장 계성 스님을 비롯해 부단장 도제 스님, 덕신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과 LA 조계종연합회장 현일 스님, LA달마사 주지 정범 스님 등이 승려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해외포교 전법사의 활동 및 사명, 미국 서부 한국불교 전법사와 이주민 현황 및 포교방안 등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법왕사 · 정혜사 · 달마사 · 고려사 등 4개 사찰 일요법회와 텍사스 댈러스 보현사 특별법회, 불광선원 · 원각사 · 보리사 · 원적사 등 뉴욕 사찰 일요법회로 포교전략을 분석한 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타불교국가의 미국 포교방안도 체험할 계획이다.

국제전법단 측은 "국제포교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와 실무를 알아가는 과정은 미주포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광진노인복지관, 18일 효사랑 한마당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5월 18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제14회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버이에게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축제'가 진행되며 신노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훌륭한 어버이상' 표창, 문화공연, 무료 중식제공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사랑채 페스티벌 아름다운 추억 여행'을 주제로 지역 어르신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측은 "'제14회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을 통해 노인공경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사업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탈북민 디자인 아카데미 수료식

분당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은 4월 29일 직업체험센터에서 디자인아카데미 3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디자인아카데미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문교육으로 바리스타에 대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3기 수료식에서는 약 30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이들은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 재능나눔 등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에서의 적응방법을 터득했다. 수료식에서는 후원처인 (주)원인터시스템의 축하선물 전달 등도 이뤄졌다.

가섭 스님은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들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물심양면 협력해준 분당경찰서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사찰림硏 서울시 동네숲 가꾸기 사업자 선정

불교계 사찰숲 연구기관인 한국사찰림연구소가 서울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의 참여단체로 선정됐다.

한국사찰림연구소(이사장 종수)는 5월 1일 서울시 '2017년 동네숲 가꾸기 공모사업'에 응모해 영등포구 도림동 일대 골목길을 동네숲으로 개선하는 사업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동네숲 가꾸기 사업은 녹지가 부족한 도시에 꽃과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특색이 있는 골목길 등으로 경관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한국사찰림연구소 등 10개 단체에 최대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조계종이 지원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로 선정, '소외계층여성 숲힐링프로그램' 등을 진해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장애 이겨낸 佛心, 佛音으로 전합니다"

보리수아래, 장애시인 음반 발표공연 개최

불자 장애인 문화단체인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는 5월 6일 춘천 강선사에서 장애시인들의 작사음반 〈시, 그대 노래로 피어나다〉를 발표했다.

이번에 제작한 음반은 문화채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후원으로 장애시인 작사, 비장애음악인 작사, 편곡 등 총 12곡이 수록됐다.

참여한 장애 작가로는 김소영. 김영관, 김지원, 김준엽, 김미선, 정상석, 장효성, 성인재, 이경남, 최명숙 등이며 작곡은 민성숙, 도신, 국악인으로 피아노 병창으로 유명한 최준. 시노래 풍경 진우 등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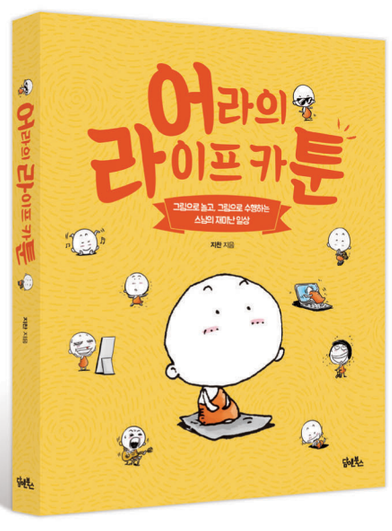
이와 함께 발표공연은 음반에 수록된 곡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국악인 겸 피아니스트 최준이 작곡한 노래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수화노래 등으로 불렀다.



4월 25일 보리수아래 10주년을 기념해 한국불교역사문화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시, 그대 노래로 피어나다'의 모습이다.

보리수아래 최명숙 대표는 "작곡, 노래, 후원, 관객 등 동참자들이 장애시인들의 활동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비장애 아티스트들이 열정적으로 참가하여 장애인예술 활동에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모임인 보리수아래는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의 제안으로 2005년 6월 결성됐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의 예술창작과 발표기회제공, 문화예술교육과 지원, 개인작품집출판 지원과 음반 제작, 장애인의 인식개선사업, 탬플스테이 및 불교문화 탐방 실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어라의 라이프 카툰
그림으로 놀고, 그림으로 수행하는 스님의 재미난 일상
지찬 지음 | 288쪽 | 13,000원



만화 그리는 스님이 나타났다!

우리랑 비슷해서
우리 맘을 잘 알아줄 것 같은
어라 스님의
마음, 세상, 사람 이야기.





담앤북스 02) 765-1251



좋은 봄날에 울지 마라
이 봄날,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대견하다
현진 스님은 백 마디 말보다 자연의 풍광들이 말없이 위로를 건넬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며, 우리를 자연의 자리로 초대한다.
현진 지음 | 288쪽 | 14,000원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 힘이 되는 말
범수 스님과 함께 읽는 부처님 말씀
스님이 여러 경전과 논서에서 가려 뽑은 부처님 말씀을 우리네 평범한 일상과 잘 버무려 마치 아늑한 스님 방에서 차담을 나누듯 편안히 들려준다.
범수 지음 | 236쪽 | 14,000원



비우는 연습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58가지 정리법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100'에 꼽힌 마스노 슌묘. 승려이자 정원 디자이너인 그는 '진짜 정리해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강조한다.
마스노 슌묘 지음 | 220쪽 | 13,000원